

# 반갑다 '황대포'



##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잇몸 야구'로 성적과 미래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전했던 KIA에 올 시즌도 '부상'은 핵심 키워드다. 지난해에 이어 곳곳에서 부상이 이어지고 있고 젊은 선수층 탓에 부상 여파는 다른 팀보다 더 크다.

지난주에도 부상은 KIA를 괴롭혔다.

병든에 이어 브룩스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발고민을 해야 했고, 13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1차전 선발로 나와 공·수에서 맹활약했던 박찬호도 수비도중 어깨 부상을 입었다.

부상으로 인한 '강제 리빌딩'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고민은 더 깊다.

지난 5월 20일 우천으로 취소됐던 SSG 랜더스와의 경기가 16일 더블헤더로 편성되면서 KIA는 이번 주 7연전을 치러야 한다.

## KIA, 선수들 줄부상에 고전 ... 황대인 불방망이에 홈런포 '핑핑'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LG 원정경기 ... 이번주 뽀뽀한 7연전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서 LG 트윈스와 상대한다. 지난 6일 대결 이후 2주 만에 벌써 4번째 시리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빠진 선발진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임기영이 패전투수가 됐지만 지난 10일 삼성전에서 6.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31이닝을 8실점으로 막으면서 2.3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 경기에서는 단 하나의 볼넷도 내주지 않는 등 위기의 선발진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민우도 13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 등판을 통해 KIA에 귀환 선발승을 기록했다. 위기는 있었

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또 9일 삼성전을 통해 2년 만에 선발로 나선 차명진도 승리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했지만 4.2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KIA는 이번 주 7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화려한 지원이 절실하다. 마운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격, 황대인이 눈길을 끈다.

류지혁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은 황대인은 꾸준하게 1루 자리에 서면서 경험과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

이는 결과로 드러난다. 황대인은 지난주 5경기에서 20타수 8안타를 기록하며 '4할'을 찍었다. 홈런도 2개를 기록하면서 파워도 과시했다.

## ■ KBO 중간순위 (1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KT	55	32	0	23	0.0
2	LG	58	33	0	25	0.5
2	삼성	58	33	0	25	0.5
4	SSG	55	31	0	24	1.0
5	NC	57	29	1	27	3.5
5	두산	56	29	0	27	3.5
7	키움	59	28	0	31	6.0
8	KIA	55	23	0	32	9.0
9	롯데	56	22	1	33	10.0
10	한화	57	22	0	35	11.0

황대인은 "요즘 안타를 치고도 직구를 쳤는지 변화구를 쳤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공만 보고 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반응하고 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터커와 최형우를 위해서도 황대인이 타선의 무게감을 더해줘야 한다.

터커와 최형우는 지난해 나지완과 함께 막강 타선을 구축했지만 올 시즌 꾸준함과 강렬함이 떨어진다.

지난주에도 터커와 최형우는 나란히 홈런을 날렸지만 중요한 순간 아쉬운 결과가 더 많았다. 5경기에서 두 사람은 각각 2개의 안타만 기록했다.

안타는 2개에 그쳤지만, 볼넷은 5개씩 더했다.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는 KIA의 타순에 빈틈이 많은 만큼 굳이 터커와 최형우와 정면 승부할 이유가 없다.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터커와 최형우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다른 타자들도 화력을 키워 상대의 선택의 폭을 좁히며, 터커와 최형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물론 터커와 최형우도 팀의 주축 선수다운 집중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편 이번 주 최형우가 볼넷 하나를 더하면 KBO리그 통산 9번째 900 4사구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불굴의 조코비치, 프랑스오픈 테니스 역전 우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3436만7215 유로·약 469억 8000만원) 남자 단식 정상에 5년 만에 복귀했다.

조코비치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5위·그리스)에게 4시간 11분 대결전 끝에 3-2(6-7(6-8) 2-6 6-3 6-2 6-4) 역전승을 거뒀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한 조코비치는 2월 호주오픈에 이어 올해 열린 두 차례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40만 유로(약 19억원)다.

조코비치는 또 이번 우승으로 4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을 모두 2번 이상씩 우승한 역대 세 번째 선수로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9회, 윌블던 5회, US오픈 3회 정상에 올랐고, 프랑스오픈은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이다.

4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을 모두 2회 이상씩 우승한 선수는 1967년 로이 에머슨(호주), 1969년 로드 레이머(호주)에 이어 조코비치가 세 번째다. 조코비치는 또 역대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를 19회로 늘리면서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와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의 20회를 바짝 추격하게 됐다. /연합뉴스



14일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조코비치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22세 셋별 히고, PGA 팰머토 챔피언십 우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깜짝 놀라게 한 개릭 히고(남아프리카공화국)는 이미 유러피언투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히고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의 롱가리 골프클럽(파71·765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팰머토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달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처음 PGA 투어 경력을 시작한 히고는 두 번째로 출전한 PGA 투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거침없는 성

장을 보였다. 이 우승으로 히고는 최근 출전한 6개 대회에서 3승을 수확했다.

지난 4월과 5월 유러피언투어에서 1승씩 올린 히고는 3개월 연속 우승에도 성공했다.

1999년 5월 12일 남아공에서 태어난 히고는 2019년 프로로 전향, 아프리카 지역 투어인 선사인 투어에서 뛰며 2승을 거뒀다.

히고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기록에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90년 이후 유러피언투어나 PGA 투어에서 26개 대회만 뛰고 3승을 거둔 선수는 우즈 이후 히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14일 PGA 투어 팰머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개릭 히고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고미영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광주시산악연맹 선전



'제12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선전한 광주시산악연맹(회장 피길연) 선수들. <광주시산악연맹 제공>

지난 12-13일 전북 군산시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광주시산악연맹(회장 피길연)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리드(Lead)·볼더링(Bouldering)·스피드(Speed)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주니어 부문에 출전한 이도현(바위클라이밍)은 리드와 볼더링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유스A 부문의 김도현(풍암고)은 리드와 볼더링에서 각각 1위에, 유스B 부문의 송현우(일곡중)는 스피드에서 1위와 리드 및 볼더링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주니어 여자 부문의 김혜민(풍암고)은 스피드에서 1위, 유스B 여자 부문의 정의연(용두중)은 리드와 스피드에서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앞서 치러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도현·김란(바위클라이밍) 선수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 대표로 선발됐다.

한편 리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m 높이의 암벽을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종목이고, 볼더링은 4-5m 높이의 여러 코스 중에서 더 많은 코스를 완주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다.